



강북구의회
GANGBUK DISTRICT COUNCIL

의정활동보도

2015년 1월 30일
(금요일)

문화신문 4면

최고고도지구 특별위원회, 주민간담회

강북구의회 최고고도지구 완화 특별위원회(이백균 위원장, 이정식 부위원장, 이용균 위원)는 지난 22일 오전 11시 신관 2층 접견실에서 주민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간담회에는 주택건설, 건축자재 및 부동산업에 종사하는 주민 4명과 구청 관련부서 팀장이 참석하였으며, 간담회에서 최고고도지구 완화 특별위원회 구성 배경 및 최고고도지구 완화 필요성에 대한 설명과 해결방안, 삼양동 정비구역내 애로사항 및 주민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문제 해결방안을 모색, 서울시의회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장 간담회 내용 설명과 향후 최고고도지구 완화 특별위원회 일정에 대하여 의견을 나누었다.

이 자리에서 주택건설업을 김○○님은 미아동 791번지 일대 토지를 매입하였으나 그 토지가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되어 있는데 주거환경개선지구에 대하여는 최고고도지구 완화 내용(당초 5층, 20m이하에서 높이만 20m이하로 완화)이 적용되지 않아 피해를 보고 있으며, 부동산업을 하는 조○○님도 최고고도지구 제한



때문에 재개발 사업이 지연되어 피해를 보고 있다고 애로사항을 토로했다.

이에 특별위원회 위원들은 “그 동안 최고고도지구 완화 특별위원회는 규제완화 탄원서를 제출하여 층수제한이 사라졌으며, 오늘 참석하신 대표님들이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들이 강북구를 방문할 때 피해사항을 전달하고 탄원서를 제출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백균 위원장은 “최고고도지구 완화에

대한 주민들의 요구와 애로사항에 공감하며, 합리적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향후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및 시장을 방문 등을 통하여 최고고도지구 완화를 요청할 예정이며, 특히 주거환경개선지구내 최고고도지구 완화 적용에 대한 사항은 구청 관계부서를 통해 절차를 확인하고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